

2년 만에 850원대 ‘초엔저’… 여행·엔테크에 환전도 급증

주요 통화대비 원화값 지속 상승
엔화는 제자리… 원·엔환율 급락
5대은행 엔화예금 잔액 1.3조엔
전문가들, 당분간 엔화 약세 지속

원화 대비 엔화값이 100엔당 850원대까지 하락했다.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4년 7월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미·일 중앙은행 간의 금리차가 여전히 크고,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시장 경계감도 지속되면서 엔화값을 끌어 내렸다. 엔화값 하락에 국내 은행의 엔화 예금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었고, ‘엔테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 2년 만에 ‘초엔저’ 재현

1일 서울외환시장 원·엔 환율은 정오께 100엔당 856.66원을 나타냈다. 전 거래일의 856.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원·엔 환율은 2일 연속으로 850원대에 거래됐다. 엔화값이 850원대를 기록한 것은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4년 7월이 마지막이다.

최근 엔화값이 원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은 주요 통화 대비 원화값이 빠르게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상승한 반면, 엔화값은 약세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원화값의 달러값 대비 절상률은 약 12% 수준이다. 하반기 들어 수출기업의 환전이 늘며 수급 불균형이 해소됐고, 달러도 약세 전환하며 원화값을 끌어 올렸다. 반면 같은 기간 엔화의 달러 대비 절상률은 1.49%에 불과했다. 원화값이 강

세 전환하는 동안, 엔화값은 제자리걸음 하며 원·엔 환율이 급락한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엔화의 약세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 양국 중앙은행 간의 기준금리차가 꼽힌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6월 정책금리를 25bps(1bp=0.01%포인트) 인상해 연 1.0%로 확정했다. 연 3.75% 수준인 미국 기준금리와는 금리차는 연 2.75%p 수준이

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장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 우려도 엔화값이 하락한 이유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적극 재정’을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 엔화 약세… ‘환전’도 급증

엔화가 원화 대비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엔화 환전도 빠르게 늘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엔화예금 잔액은 총 1조3456억엔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말의 1조388억엔과 비교해 3000억엔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했던 2024년 6월의 1조2705억엔을 큰 폭으로 경신했다.

최근의 엔화 예금 증가는 미래의 관광을 준비하는 내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작용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일본을 찾은 한국인 수는 945만 96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래의 엔화값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

대한 ‘엔테크’ 수요도 크다. 과거 2024년 7월 100엔당 850원 수준이었던 엔화는 일본은행의 거듭된 정책금리 인상에 힘입어 2025년 4월에는 약 1020원까지 급등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엔화가 당분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향후 강세 전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다카이치가 엔화 약세의 핵심 배경인 재정 우려를 의식해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40조엔 규모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행의 대파적 행보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일본은행이 9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엔화 약세 추이를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9월 금리인상 후 연내 추가 인상을 약속한다면 엔화값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지난 2024년 7월처럼 엔화가 빠르게 강세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교통·인프라·교육 3박자 ‘원스톱 라이프’

부동산 현장 르포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도보 10분
주거용으로 계획 ‘중대형 오피스텔’
지하6~최고 48층 3개 동에 651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20년 만의 신축인 ‘목동윤슬자이’가 청약에 나선다. 옛 KT 부지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도보 10분 인박의 거리다. 오목교역에서 출발하면 ‘교육 특구’답게 학원 간판이 뽐뽐하게 붙어 있는 대로변 빌딩과 현대백화점 목동점, 오목공원을 지나면 공사 현장이 나타난다. 오피스텔이지만 중대형 평형인 데다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계획했고,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에 필수인 커뮤니티는 호텔급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GS건설이 시공하는 목동윤슬자이는 목동 924 외 2개 필지에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타입별 공급 물량은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3㎡AD 10실 ▲202㎡BD 9실 ▲198㎡CD 8실 등 총 651실이다. 전 호실에 오픈형 발코니를 적용하고,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해 가족 단위 실거주 수요를 겨냥했다.

김필문 GS건설 목동윤슬자이 분양소장은 “목동은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인프라는 물론 교육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이라며 “목동윤슬자이는 이런 입지를 기반으로 기존 주거공간과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상품 기획 단계부터 랜드마크가 될 만한 외관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가족친화적 주거평면으



목동윤슬자이 모형도.

/안상미 기자



203㎡AD 유닛 내부 전경.

/GS건설

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퍼트(Hypert)’는 ‘초월’을 의미하는 라틴어 ‘하이퍼(Hyper)’와 ‘아파트(Apartment)’의 합성어다. 핵심 입지 내 실용적 평면을 바탕으로 고급 커뮤니티와 단지 내 원스톱 라이프를 가능하게 한 하이브리드 주거 카테고리 목동윤슬자이가 처음 선보인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114㎡B, 115㎡A, 203㎡AD 등 3개의 유닛이 공개됐다.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확장된 발코니 부분을 내부 공간으로 활용해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대비 좁다는 편견을 깬다.

전용 114㎡B는 거실 이면개방 설계로 채광·통풍을 극대화했다. 발코니가 5곳에 달해 채광면적은 일반 아파트 40평대와 비슷했다. 거실과 이어진 발코니는 거실

의 연장으로 쓰고, 주방 옆 벽면을 통째로 책장으로 세운 서재형 다이닝으로 꾸몄다. 자녀방 쪽 발코니는 집중 학습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등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 방 하나로 설계했다.

전용 203㎡AD는 복층형이다. 현관에는 유리도어를 넣은 대형 신발장이 벽 하나를 채우고 그 인쪽에 팬트리도 따로 마련됐다. 아래층 공용 공간인 거실은 층고가 상부층까지 트여있고, 위층 개인 공간에는 야외 테라스와 스파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1~14단지 부지는 대부분 주거용지로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해도 생활권의 중심은 오목교역 일대에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목교역 일대의 중심성 확대와 함께 재건축에 따른 주택 멸실도 신규 주거 수요를 끌어들이 것”이라고 전했다.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은 오는 3일 개관할 예정이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돼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입주는 2030년 하반기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진옥동 “신뢰할 수 있는 AI 설계가 경쟁력”

신한금융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은 단순히 인공지능(AI)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넘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은 1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이날 진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지주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진 회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지난 25년간 신한금융의 성장 과정을 되짚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한 핵심 가치로 ‘신뢰’와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시했다.

진 회장은 우선 신뢰를 다음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행조건이자 결정적 요인으로 규정했다. 금융서비스의 방식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금융회사는 결국 고객의 신뢰를 통해 평가받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AI 확산으로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할 신뢰의 범위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내다



봤다. 향후 고객을 대신해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투자와 거래까지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될 경우 금융사의 AI 설계 역량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회장은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은 단순히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를 넘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잃는 것은 미래의 성장 기회를 잃는 것과 같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부통제를 비롯해 수익성, 시장 지위, 고객기반, 조직문화, 인공지능 전환(AI) 등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경쟁력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신한의 지난 25년은 성공과 실패, 도전과 반성을 거쳐며 성장해 온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신한만의 확고한 신뢰와 서로를 받쳐주는 모든 영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높이 도약해 나가자”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은행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개시

미래에셋생명과 업무협약

하나은행은 미래에셋생명과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판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해당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미래에셋생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전용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판매한다. IRP 고객의 선택지를 기존 예·적금과 펀드에서 보험상품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해당 상품은 IRP 적립금을 글로벌 주식과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하면서 장기적

인 운용성과와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함께 추구하도록 설계됐다. 만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 원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 시 확정된 연금기준금액을 바탕으로 20년간 매월 일정한 연금액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계정 적립금이 보증기간 중 소진되더라도 약정된 연금액은 20년 동안 지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목적과 은퇴 시점, 생애주기를 반영한 차별화된 연금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